



“『“늘 푸른 경기교육으로,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 조성윤 경기도 교육감

학생수와 학교수, 재정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방대한 경기교육을 이끌어 오고 있는 조성윤 교육감은 「늘 푸른 경기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교육을 빠짐없이 살피고 찾아가 돕는 행정을 펴기 위해 집무실에 있기보다는 학교 현장을 찾을 일이 더 많다.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서 알수 있듯이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시종일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 경기교육의 현황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교육은 한마디로 방대하고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접적지역 등 전국의 지역적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고, 대·소규모 택지 개발과 그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 그런가 하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산업 시설의 밀집,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등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습니다.

인구사회학적으로도 그 구성과 문화가 지역성과 전국적 특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와 학생수, 교육 재정 규모는 전국 1위입니다.

경기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에는 전국의 각·시도가 안고 있는 교육 과제들이 모두 잠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경기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의 중심이며, 교육의 장래를 점칠 수 있는 시금석이요 희망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잘 되면우리 나라 교육이 잘 된다고까지 합니다.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장점과 특성을 십분 살려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경기교육을 건설하기 위해 교육의 기본 방향을 「도덕성 함양 교육」과 「창의성 계발 교육」으로 정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 지표로 설정하여 「민주 시민 교육의 충실, 개성신장 교육의 철저, 과학·정보·실업교육의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여건의 현대화」 등 5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교육의 지향점이 「늘 푸른 경기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늘 푸른 경기교육」은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교육, 한결같이 기본이 튼튼한 교육, 끊임없이 생동하면서 발전하는 교육,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창조 발전해 가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늘 푸른 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 소년체전 11연패, 전국 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전국 교육자료전 8연패,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 6연패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학생수 급증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보화 부문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6월 도교육청 자체로 실시한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급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새 학교문화 창조,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학비 지원, 교육정보화 추진 등 교육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 천년 경기교육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 **교육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1세기의 첫해인 금년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라는 민족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기필코 평화통일과 함께 세계 제일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는 인적 자본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회이며, 지적 활동에 의해서 부가 창출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고기술·고숙련 노동력이 가장 큰 자본이 될 것입니다. 지식과 창의성으로 대변되는 무형 자산인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 시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우리 교육은 도덕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이웃이 되는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격적 자질입니다. 또한 창조적 지식이 중시되는 지식 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공유하고, 전파하고, 가공하고, 더 높은 지식을 창조하는 창의력을 갖춘 신 지식인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반드시 버려야 할 교육에 대한 편견과 관습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은 신분 유지나 상승을 위한 사회적 엘리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삶의 조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오로지 사회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인격의 원만한 성장에 있습니다. 교육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을 기르는 일, 성숙한 안목과 판단을 위한 지적 능력

을 기르는 일, 풍부한 정서생활을 위한 세련된 감정을 기르는 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갖추는 일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에서 이러한 내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회적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자녀들을 시험기제로만 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사교육이 성행하게 되고 사교육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편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한 줄 세우기를 위한 시험 성적이 아니라 인간적 품위로서 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는 성숙한 사회에서 우리 교육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도내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창 성장해 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건강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의 건강유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약 20억원을 지원하여 학교 보건실의 설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최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간혹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22억 4천만원을 지원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등 급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종합 건강 검진비로 19억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질병 및 건강 이상자를 조기에 발견, 치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식습관의 변화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증,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성인병 정밀검사를 2억여원을 지원하여 치유 지도와 예방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확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의식주의 일부를 학교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점, 가장 활발한 성장기에 있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영양 공급 행위라는 점에서 교육 환경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단 한 번의 부주의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양 관리 못지 않게 위생 관리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연 2회 급식학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영양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급식관



- ◎ 서울 농업고등학교(1957), 서울 시립 농업대학교 졸업(1963)
- ◎ 동부여중 교장(1986~1988)
- ◎ 광주 교육장, 중등교직 과장 (1990~1995)
- ◎ 중등 교육국장(1995~1997)
- ◎ 민선 2대(제10대) 교육장 취임 (1997~현재)

하루 일을 구상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도교육청 간부들의 다짐대회를 겸한 설악산 대청봉 등반대회에서 11시간이 소요되는 산악코스를 쉬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이만하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을 위해 더 좋은 비결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대로 따

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르겠습니다.(웃음)

▶ **평생의 좌우명이나 교육자로서 지켜 오신 소신이 있다면?**

좌우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평소 바른 마음을 갖는 일, 즉 정심(正心)을 지키고자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교육을 통하여 바른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건강의 한 요소가 되지 않나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교직원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은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 될수록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심(正心)을 통하여 우리의 참모습을 구체적 행위로 드러냄으로써 개인과 사회 모두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외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은 바로 이 정심(正心)에 뿌리를 두고 사랑, 대화, 꿈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3유」 실천과, 스승의 모습, 스승의 자리, 스승의 할 일 등 「스승의 세가지 되찾기」실천으로, 믿고 맡기는 교육풍토조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바른 마음을 지니고 스스로 자아 실현을 이루는 동시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우선 교육에 눈을 돌려 왔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협회에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교육감인 제가 건강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웃음) 건강을 위해 남다르게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만, 평소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집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백년대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육은 곧 미래요 희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절제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면 해롭다는 생각입니다. 의식주 모두 간편히 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또한 교육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사회적 행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원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도 교육 발전을 위해 일정한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육의 주체요 주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이 보람찬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고 이끌고 발전시켜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믿고 사랑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전념하여 소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푸른 꿈을 가꾸어 나가는 교육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㉞